# 문화예술 관람률 15년만에 80%대 진입

## 문체부,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평균 관람횟수 5.6회
## 문화누리카드 ·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문화향유 확대 정책 추진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16년 78.3% 대비 3.2%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3년 62.4%에서 15년 만에 19.1%포인트(p) 상승하여 80%대로 진입했다. 문화예술 관람률 조사 이래 처음이다. 관람횟수도 지난 1년간 평균 5.6회로 2016년 5.3회에 비해 0.3회 증가했다.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은 60대 이상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2016년 대비 60대는 9.0%포인트(p), 70세 이상은 7.5%포인트(p) 각각 증가하여 60대 64.7%, 70세 이상 46.9%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11일 발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향자)과 함께 지난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만 15세이상 남녀 1만 558명을 조사했다.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1:1 가구 방문 면접으로 진행했다.

**◇16년 대비 전 분야 관람률 상승, 대중음악-연예 · 문학행사 증가폭 높아**

분야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상승했다. ▲대중음악/연예는 6.5%포인트(p), ▲문학행사는 3.1%포인트(p), ▲뮤지컬은 2.8%포인트(p) 증가하였으며, 미술전시회, 영화, 전통예술 관람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률(75.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음악/연예(21.1%), 미술전시회(15.3%), 연극(14.4%), 뮤지컬(1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 · 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16년 대비 6.0%포인트(p) 상승한 71.7%로 조사되어 대도시(85.2%), 중소도시(82.1%)와의 관람률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 원 미만 소득가구 관람률 대폭 상승, 소득별 격차는 여전**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 42.5%, 100~200만 원 미만 58.4%로, 16년 대비 각각 11.6%포인트(p), 12.7%포인트(p) 상승하였으나, 월평균 600만원 이상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 91.9%와 비교할 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대 이상 관람률 증가폭 가장 높아**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은 60대 이상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16년 대비 60대는 9.0%포인트(p), 70세 이상은 7.5%포인트(p) 각각 증가하여 60대 64.7%, 70세 이상 46.9%로 나타났다. 그러나 90%가 넘는 3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완 필요사항으로 '작품의 질'을 우선으로 꼽아**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32.8%가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28.0%)',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3.3%)',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12.5%)' 순으로 응답했다.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 정책 강화**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직접적인 참여 의지뿐만 아니라 활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활동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 인상(18년 7만원 → 19년 8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화셈터(http://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policydb.kcti.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한국문화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재외문화원장 · 문화홍보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의 문화원장 · 문화홍보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11일부터 14일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재외 문화원장 · 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문화원장 · 문화홍보관 41명 중, 총 36명이 참석한다. 문화원장 · 문화홍보관들은 전 세계의 한국문화원 32곳과 재외공관 9곳에서 한국문화 홍보와 우리 정부의 국정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

1979년 동경, 뉴욕 문화원 2개소로 시작된 한국문화원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문화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그 수도 32개소로 확대되었다. 주재국 현지에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 이슈 등 국가적인 현안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문화원장 · 문화홍보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열리는 장관 주재 워크숍에서는 작년 한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중국(북경) · 벨기에 문화원장, 영국 문화홍보관이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중국(북경) 문화원은 경색된 한중 관계를 벗어나 양국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낭독자', '중국시사대회' 등 중국 내 문학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작년 8월 '한중 소설대담'과 '한중 시의 밤' 등 문학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의 박범신, 정현종, 중국의 비빙빈, 왕자신 등 양국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벨기에 문화원은 2014년부터 '한국-벨기에 만화교류 특별전, 브뤼셀 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원은 세계 최초의 만화박물관인 '벨기에 만화박물관'과 협력하여 '개구쟁이 스머프', '틴틴의 모험'으로 유명한 만화강국 벨기에에 한국 만화와 웹툰을 집중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작년에는 벨기에 만화 전문잡지 'Stripgids' 3호에 한국 만화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가 최초로 게재되기도 했다.

▲영국 문화원은 런던의 평생교육원 4개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태권도, 한식, 한국어 등을 교육하는 13개의 한국문화 정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은 강사 섭외와 교

과 과정을 구성하고, 현지 평생교육원은 수강생 모집과 홍보, 교육시설 제공을 분담함으로써, 협소한 문화원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11~12일 이틀에 걸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해외 진출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 진행될 공동사업을 협의할 계획이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재외문화원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며 "앞으로는 국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문화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언론 · 문화 창조에 쏟은 열정의 발자취 '김석성 평전'

1975년 7월 김석성은 '월간중앙' 주간으로 새 출발했다. 이때 이미 '월간중앙'은 굴지의 종합 시사 교양지로 자리를 탄탄히 지키고 있었다. 창간 당시 주간은 서울대 사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 강사를 지낸 이종복이었다. 창간호는 국판형 440쪽 분량으로 발행 부수는 4만부였다. '월간중앙'은 '출판국의 얼굴'과 같은 잡지로, 초창기부터 견지해오던 편집 방침이 있었다. 딱딱한 읽을거리는 전반부에, 쉽고 부드러운 읽을거리는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예술, 인문 분야 기사도 많이 실었다. 그래서 당시 자기 생각을 발표할 지면이 부족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좋아했다. '월간중앙'은 1971년 5월호부터 문고판형 별책 부록을 발간하여 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언론인, 출판인, 교육가 등으로 활동한 김석성(1935~2014)의 생애를 기리는 평전이 출간됐다. 1989년 스포츠서울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등단한 김인기 작가가 썼다. 평전 전반부가 사회부 기자의 눈에 비친 시대의 기록이라면, 평전 후반부는 사회의 변화 · 발전을 위해 헌신한 기록이다.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석성은 1960년 한국일보 사회부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1965년 중앙일보로 이직한 뒤 법조 출입기자를 하다가 사회부 데스크가 됐다.

평전에는 김석성이 쓴 여러 기사가 실렸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수다. 중앙일보는 1971년 3월부터 9월까지 '세계의 한국인'이라는 기사를 연재했다. 언론사에서 한민족의 유이민사를 처음 다룬 선구적인 기사였다. 이때 김석성은 미주 지역을 취재했는데, 평전에 일부 내용이 실렸다.

김석성은 1967년 4월 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윤보선 후보가 붙은 제6대 대통령 선거 현장을 취재했다. 4월22일 중앙일보에는 박정희 후보의 부산 초량 유세를 스케치한 김석성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에서 김석성은 냉철한 시선으로 유세장의 풍경을 관찰한 후,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 표의 귀와 눈이 서울 남산과 부산 초량으로 쏠렸다. 비판과 폭로, 공약과 변명의 틈바구니에서 한 표의 눈은 올바른 곳을 찾아 날카로이 빛났다. 제6대 대통령 선거전이 피크에 이른 22일 부산 초량 향도국민학교 교정에서는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가,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는 윤보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가 각각 열려 선거전 막바지에서 두 후보는 대도시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1975년부터 4년간 '월간중앙' 주간으로 일하면서 종합 시사교양지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1980년대에는 중앙일보 시카고 지사장, 뉴욕 지사장으로 일했다. 1987년 한국으로 돌아와 중앙일보에서 출판제작국장 등을 지냈다. 그 후 세계일보로 옮겨 출판국장을 한 다음 30년 언론인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출판사를 설립, 14년간 경영했다. 여러 공공 문화자산을 재생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백남준 아트센터, 부안의 석정문학관과 바둑기념관 등은 그가 이룬 성과물들이다.

2003년 낭주학회(부안여자중 ·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타계하기 전까지 고향 부안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노령임에도 기자 시절 못지않은 열정으로 일했다. 부안이 배출한 시인인 신석정 문학관 건립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부안 바둑공원 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부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꾼 따뜻한 지식인'이다. 김석성이 남긴 말과 행동에서 담백한 심성, 선한 의지, 순수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출판사 에디터는 "기자 시절부터 수많은 글을 썼던 김석성은 생전에 본인의 책을 한 권도 출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석성을 잘 아는 몇몇 사람이 그의 생애는 시대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평전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유족이 보관하던 자료를 취합하고, 주변인물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 400여쪽의 평전이 나올 수 있게 됐다" 415쪽, 1만8000원

/뉴시스